



MY GREEN DAYS

+

LOVE IT
CAMPAIGN



TREND

ON THE RUNWA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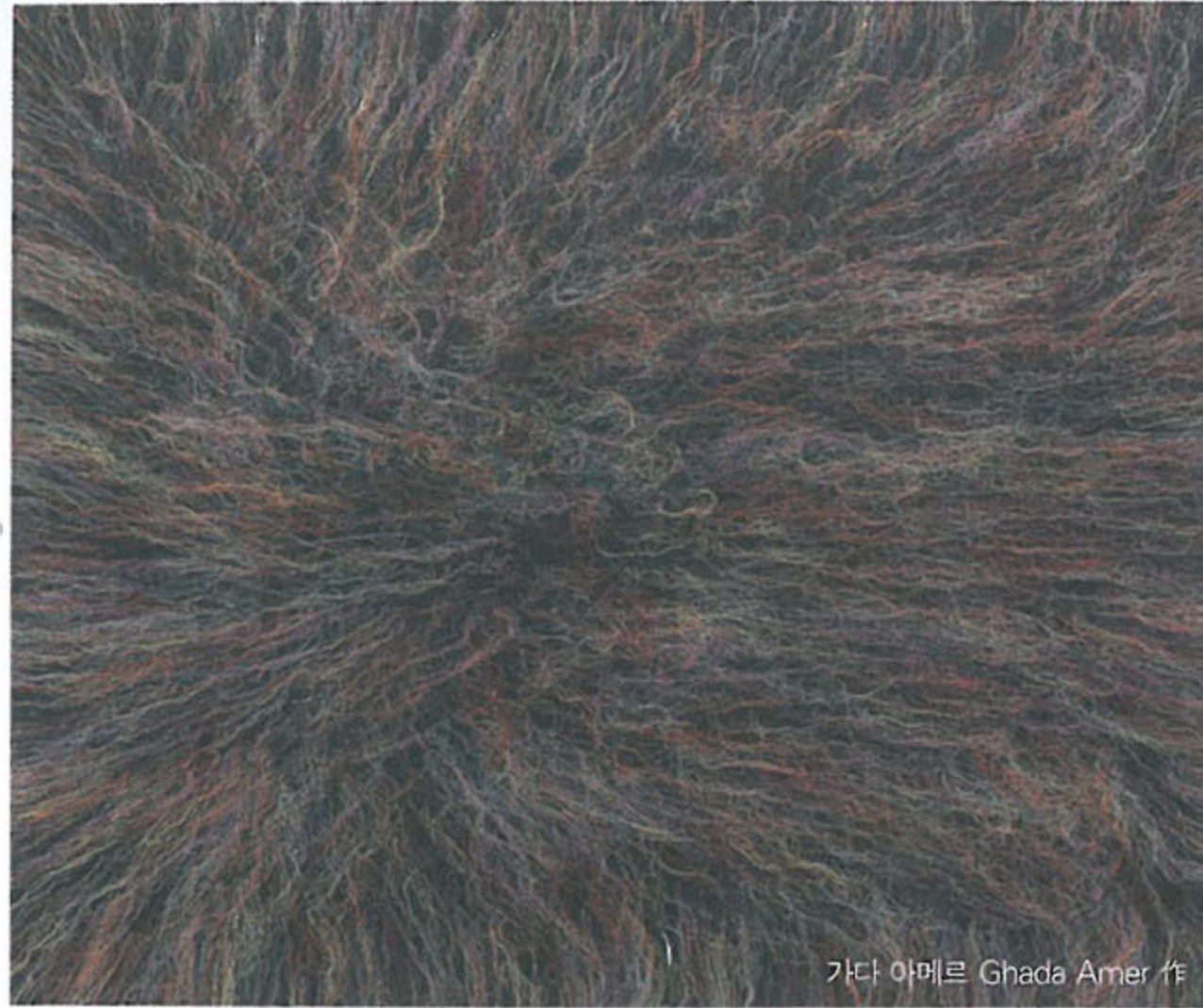
+
THE
SHINSEGAE
10

BRING MORE
SPRING

BEAUTY & CRAFT

MEN IN THE BAG

*and
much more*



가다 아메르 Ghada Amer 作

뮌헨·파리·도쿄**뮌헨, 파리, 도쿄를 잇는 루이 비통의 붉은 실**

3월부터 5월까지 뮌헨, 파리, 도쿄의 루이 비통은 전시 <붉은 실>로 이어진다. 실을 주요 소재로 하는 8명의 현대 아티스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세 곳의 루이 비통의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파스에서 동시에 열리게 된다. 작품 속의 실은 자수나 꿰매는 방법부터 조각의 형태 또는 공간을 이루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용된다. 에스파스 루이 비통 뮌헨에서는 자수를 기본으로 한 가다 아메르·트레이시 에민·마이클 레데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, 이는 파리에서 이사 멜스하이머·프레드 샌드백과 치하루

시오타의 작품으로 이어진다. 피날레를 장식하는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는 가다 아메르, 마이클 레데커, 타티아나 트루베의 작품을 통해 전시의 결론을 보여준다. 한스 옵 드 빅이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영화 <더 스레드 The Thread> 역시 주제를 담아내고 있으며, 세 곳의 모든 에스파스에서 상영된다. 전시는 에스파스 루이 비통 뮌헨에서 4월 11일까지, 에스파스 루이 비통 파리에서 5월 3일까지,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에서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린다.